

「SNA구조에서 가구 소득, 소비 및 저축에 대한 분배정보」 관련 전문가그룹 회의 참가 결과보고

I 회의 개요

- 기 간: 2015. 5. 28(목) ~ 5. 29(금)
- 장 소: 프랑스 파리 OECD 회의실
- 참 가 자: 복지통계과 전용수 주무관
 -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 15개국 및 OECD, Eurostat 등 3개 국제기관
- 회의목적
 - OECD의 「SNA내 가구 소득·소비·저축 분배 정보」 프로젝트 관련, 최근 작성결과 및 시사점 공유
 - 최근 작성결과 공표에 관한 OECD 및 각국 의견수렴 등

II 주요 회의 내용

I 최근 작성결과 발표(OECD)

- 그간의 경과
 - (2010년)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계정내에서 분배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비교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는 프로젝트 시작
 - (2013년) 1차 연구 및 평가 결과*를 보고서로 발간
- * (한국의 작성 결과) '09년 소득 5분위배율 3.5배(가계동향 5.8배), 소비 5분위배율 2.1배로 비교대상 7개국 평균 2.2배보다 낮음
- (2014년) 작성 방법개선 작업 지속 및 각국에 2차 작성결과 제출 요청
 - (2015년) 각국에서 보내온 2차 작성결과 취합 및 보고서 초안 작성

○ 최근 작성 결과 내용

① 응답국가 현황

· 미참가 국가* : 독일, 호주, 핀란드

* 독일-1차결과는 제출했지만, 매크로·마이크로 데이터의 결점 때문에 의미있는 자료 생산 못한다는 의견으로 미제출/ 호주-다른 기준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공표중 / 핀란드-자료없음,

· 자료제출 지연국가: 한국, 캐나다, 이탈리아, 뉴질랜드

· 자료제출 국가 :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일본 등 11개국

② 자료 처리절차

(1단계) 마이크로데이터로 배분하기 위한 국민계정 총합의 조정

(2단계) 국민계정 변수에 대응되는 마이크로데이터 변수 결정

(3단계) 마이크로데이터의 미싱 데이터(사회적현물이전, FISIM 등)를 임putation하여 조정된 국민계정 총합으로 맞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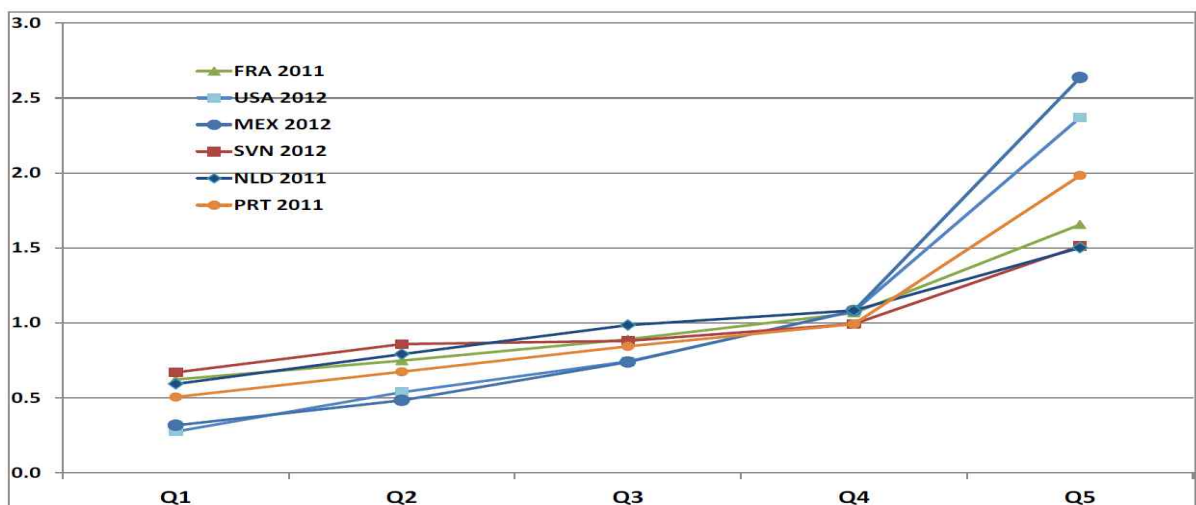
(4단계) 가구를 소득분위에 따라 분류(clustering)

(5단계) 분배 관련 적절한 지표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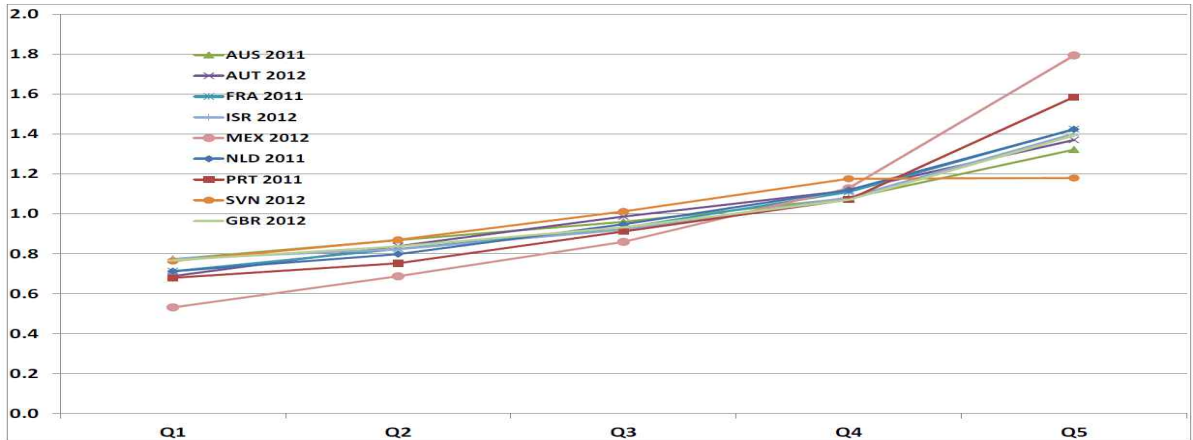
③ 분배정보 취합결과(draft)

- 평균대비 비율: 전체 평균대비 각 그룹별 소득 배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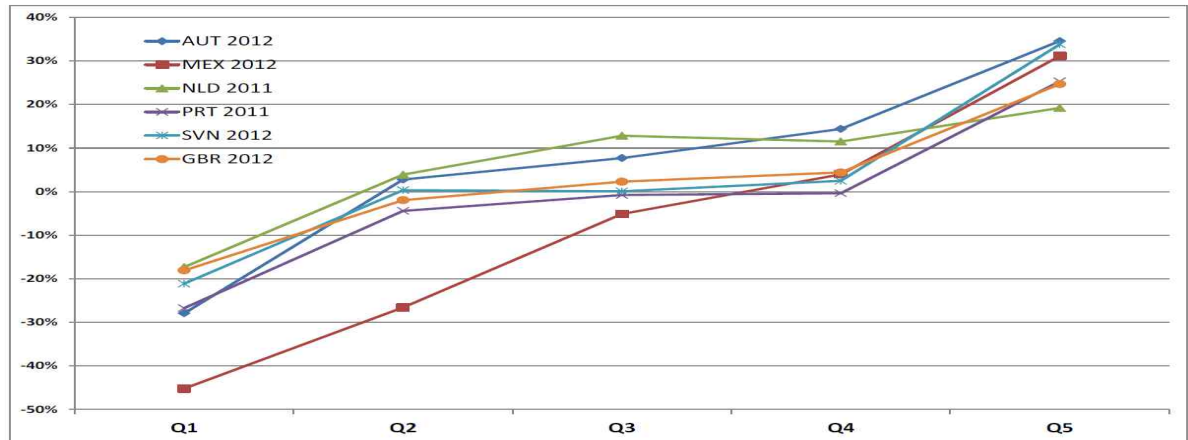
· (소득부문) 5분위의 평균대비 비율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, 미국 등



· (소비부문) 멕시코,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유사한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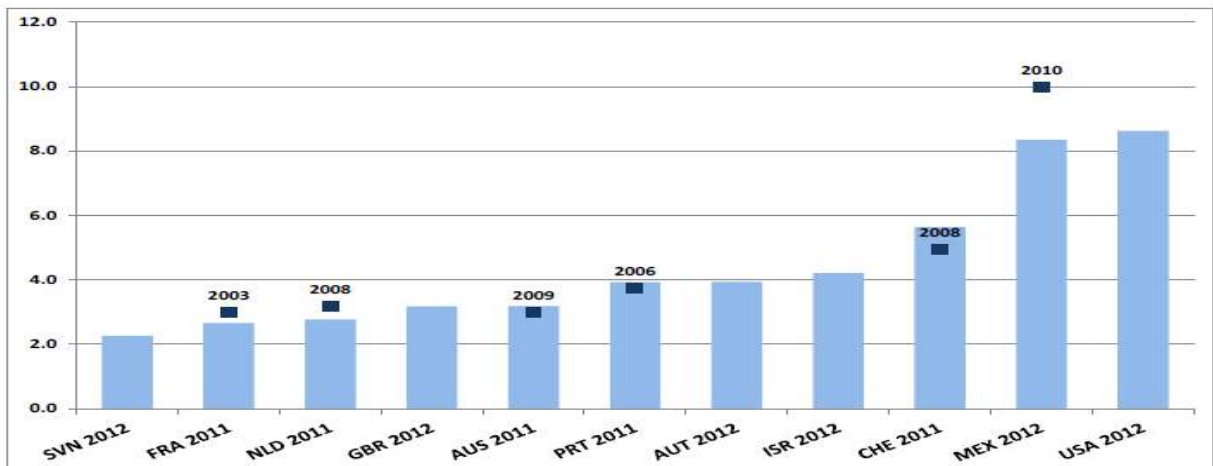


· (저축부문)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유사한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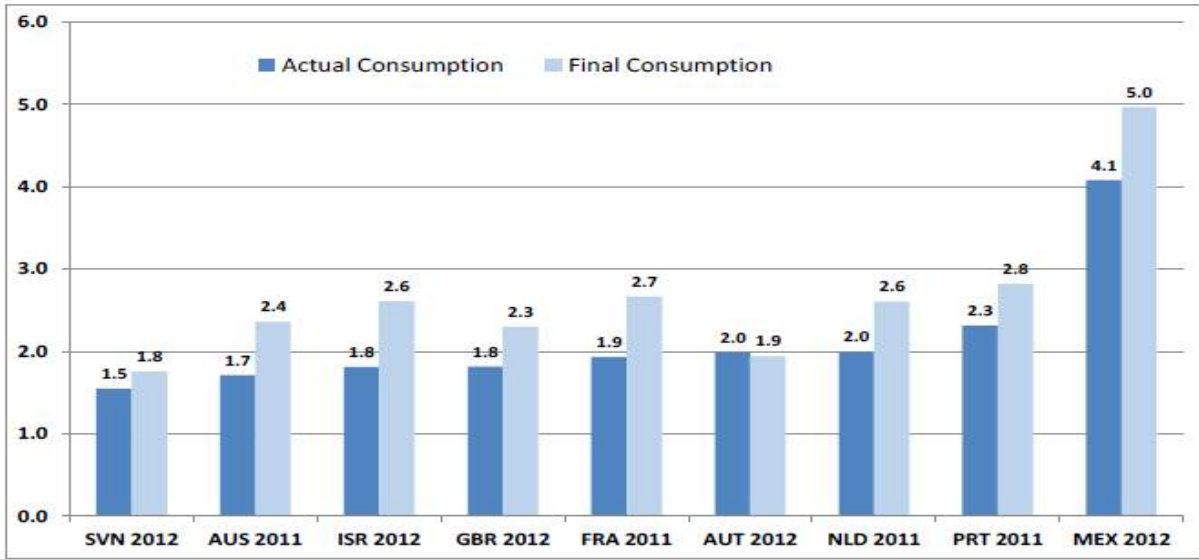


- 5분위 배율: 1분위 소득 · 소비 대비 5분위 소득 · 소비 배율

· (소득부문) 미국, 멕시코가 8배 이상으로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



- (소비부문) 실제소비(사회적현물이전포함) 기준 멕시코가 4.1배로 가장 높고, 슬로베니아가 1.5배로 가장 낮음



② 각 국가의 작성 사례 발표

○ 미국 작성 사례발표(Bureau of Economic Statistics)

① 활용가능한 가구조사

구분	CPS (Current Population Survey)	CES (Consumer Expenditure Survey)
표본수	약 75,000가구	약 35,000가구
조사시점	익년 2월~4월	매월 연동표본에 대해 실시
주요 조사항목	소득 상세항목	지출 상세 항목
작성기관	Census Bureau	Bureau of Labor Statistics

- ② CPS와 CES의 인구통계, 주택소유구분(자가, 임대), 현금소득 등 공통항목을 기준으로 각 통계의 가구를 통계적 기법으로 매치하여 약 25,000 가구를 추출하여 작성

○ 프랑스 사례 발표(Insee)

- 1차 작성시 마이크로 데이터 원천을 EU-SILC, HBS 조사자료로 하였으나, 2차 작성시 행정자료를 보완한 조사자료를 이용

- 조사자료의 소득이 행정자료의 소득에 비해 과소함. 특히 1분위에서 과소한 정도(underreporting)가 상대적으로 큼
- 이러한 문제를 향후 마이크로 데이터 담당자와 논의 예정

○ 기타국가 사례

- (오스트리아) 재산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 부족 (활용가능한 행정자료가 없음), 사업소득의 개념 및 마이크로·매크로 데이터 매칭에 어려움
- (이탈리아) 마이크로·매크로 데이터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행정자료이용에 집중하고 있음

3] 작성결과(2차) 공표계획

○ 각 국가별 공표계획 여부

공표예정	미공표
-호주, 이스라엘: 기공표 -네덜란드('15.7월), 슬로베니아('15년말), 멕시코('17년), 프랑스('16년)	-이탈리아, 캐나다: 공표계획없음 -한국, 미국, 영국, 포르투갈 등: 미시자료의 부족, 방법론 개선, 결과의 개연성 점검 등을 이유로 미공표

○ OECD 공표 계획

- 각 국가의 최신자료 업데이트 및 미제출 국가의 자료 추가 작업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연구결과(draft)를 회원국가에 검토요청
- 회원 국가에 늦어도 '15년 9월까지 자료제출 요청함

4] 기타 연구 현황

- 정규 OECD 분배데이터(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)를 기초로 다양한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득분위 작성 실시
- 향후 빅데이터 활용한 작업으로 EG-DNA와 시너지 효과 예상

Ⅲ 시사점

- 자료 제출 여부 결정 필요
 - OECD에서 자료제출 지연국가에 대해 '15년 9월까지 자료 제출 요청, 자료제출 여부 결정 필요
 - OECD 연구결과 초안을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작성하여 이후 공표 예정

- 자료 작성 관련 한국은행 협의 필요
 - 1차 작성결과는 통계청 소득통계팀에서 가계동향 자료를 받아 필요한 작업 대부분을 실시했으나,
 - 2차 작성은 복지통계과에서 담당함에 따라 한국은행과 작업의 범위 및 자료기준시점* 등을 결정할 필요

* 국민계정 개편으로 기 제출한 '09년 자료도 소급 변경 필요

- 자료 작성시 공표중인 소득분배지표와 정합성 문제 검토
 - 소득 5분위 배율은 기존 소득분배지표에서도 공표되고 있어 자료 정합성 문제 발생 가능